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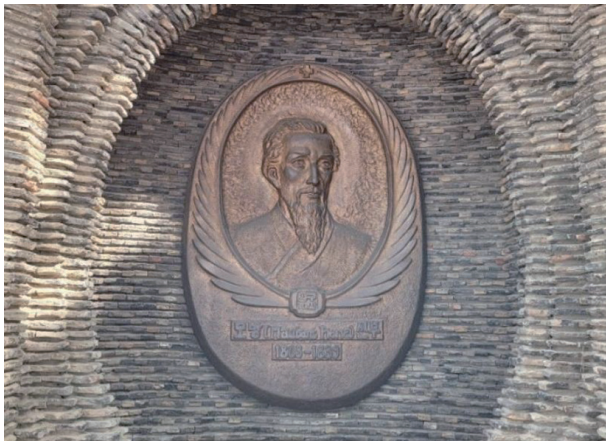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김대건 신부 ②

저번 호부터 신자들의 증언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시복재판록’[2011~2012년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간행한 대조역주빈을 바탕으로 김대건 신부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대건의 신학생 선발과 중국[마카오] 유학

김대건 신부의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그가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 간 사실에 대해서는 증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신학생 파견 자체가 선교사제와 일부 신자들이 은밀히 주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이 자세한 내막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학 장소에 대해서도 막연히 타국(他國)으로만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유학에 대해 진술한 12명의 신자 중 절반만이 중국(中國)으로 유학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성 모방 신부 부조상(구산성지 성당)

김대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증언은 신학생 선발과 연결되어서 확인됩니다. 시복재판 81회차 증인 김 프란치스코와 95회차 증인 서 야고보, 97회차 증인 이 베드로, 100회차 증인 최 베드로, 102회차 증인 이 마리아는 김대건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신학생으로 뽑혔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선천주교회의 파발꾼으로 변문과 북경을 왕래했던 김 프란치스코는 1836년 ‘노(盧)’ 모방 신부가 입국하자마자 학동(學童, 신학생)을 뽑아 유방제(劉方濟, 본명 余恒德) 신부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이 보냈다고 좀 더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증언자 이 베드로와 최 베드로, 이 마리아도 모방 신부가 김

대건을 신학생으로 뽑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양업 신부의 제수인 이 마리아는 모방 신부가 김대건과 함께 최(양업) 토마스도 신학생으로 뽑아 타국으로 보냈다고 진술에 덧붙였습니다.

김대건 신학사의 조선 입국 시도 (1842년 12월 말~1843년 1월 초)

시복재판에 나온 증인들은 대부분 김대건의 신학생 선발과 유학에 대해 언급한 다음 바로 그가 사제 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한 사정을 진술했는데, 파발꾼 김 프란치스코와 최양업 신부의 동생인 최 베드로 두 사람만은 김대건이 혼자서 변문을 통해 조선에 입국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에 따르면, 그 자신이 연행사의 일행으로 변문에 다다랐을 때 김대건과 만났습니다. 당시 김대건은 같이 조선으로 나가기를 간청했지만, 영접 준비도 없고 위험했기 때문에 김 프란치스코는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김대건이 혼자 의주까지 왔다가 잡힌 뻔하고 도로 요동으로 귀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1843년 1월 15일자 서한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만 1884년 당시 김 프란치스코의 증언에는 몇 가지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됩니다. 김 프란치스코는 계묘년(1843) 동지달(음력 11월)에 김대건을 만났고 당시 김대건이 부제였다고 했지만, 둘이 만난 것은 1842년 말이고 당시 김대건은 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대략 4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김 프란치스코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건이 단독으로 의주로 들어왔다가 되돌아간 시기는 1843년 1월이고, 최양업과 같이 부제 서품을 받은 것은 1844년 12월입니다.

최 베드로의 증언도 이와 비슷한데 김 프란치스코의 반대에 부딪히자 김대건이 혼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까지 와서 숲막에 자리 들어갔는데 순찰하는 포교에게 잡힐 뻔한 것을 모면하고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증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조선인 신학생들을 어디에서 교육할 것인지?

지난 호에서는 모방 신부가 전하는 김대건 신부의 가족과 고향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소년 김대건을 포함한 조선인 신학생 3명을 사제로 양성하기 위해 어디에서 교육할지 고민했던 모방 신부의 서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년 김대건이 조선을 떠난 1836년 12월 당시에는 조선인 학생들이 신학교육을 받을 지역도 학교도 미정인 상태였습니다. 모방 신부가 이 결정을 마카오에 위치했던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의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착실한 본국인 사제가 있다면 (유럽인보다 발각될 위험이 덜하니) 조선에 박해가 일어나더라도 신앙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좋을까?”

신학생들을 파견하기 8개월 전인 1836년 4월 4일, 모방 신부는 극동대표부 대표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서한을 씁니다. 돌아오는 12월에 신학생 2~3명을 마카오의 극동대표부로 보내겠으니, 이 학생들을 교육할 시설과 지도자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서한은 1년 뒤인 이듬해 4월에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도착하고, 다시 2개월 뒤인 6월 7일에는 소년 김대건과 최양업, 최방제가 마카오의 극동대표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서한을 작성한 같은 날 모방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지도신부들에게도 긴 서한을 썼습니다. 이 서한에서 모방 신부는 조선인 사제 양성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전합니다. 모방 신부가 조선에서 신학생 교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조선에서 곧 박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경우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것이며, 그 경우 신학생들이 받을 피해는 불을 보듯 명확했습니다. 또한 신학교육을 한다면 10여명의 학생들을 모아두어야 하겠지만, 그만큼의 학생들을 한 집에 모아놓는 것도 어렵고, 자신이 신학생 교육에 필요한 만큼 시간을 충분히 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방 신부는 조선과 가까운 요동에도 조선인 신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학생들이 요동에 머물게 된다면 라틴어 공부에 앞서서 중국어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학업 과정이 더 힘들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동 지방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선인 소년들이 유럽인들에게 신학교육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금방 널리 퍼질 수 있고, 그렇다면 조선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일본에서처럼 교회 재건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조선인 신학교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다면 요동의 교회까지 박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방 신부는 “마닐라, 싱가포르, 페낭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르그레주아 신부의 판단에 따라 ‘조선인 신학교’가 마카오의 파리외방전교회 극동대표부에 세워졌고, 소년 김대건은 이곳에서 사제가 되기 위한 과정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병인지명사적』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가족 순교자 찾기

연구소에서 간행한 『병인지명사적』(대조역주, 전 6책)의 6책 인명색인 634쪽에서 ‘김대건 신부’님 항목을 찾아보면, 『병인지명사적』에서 김대건 신부님과 연관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색인에서 원문자 속 숫자는 대조역주본 책의 권 수를 의미하며, 뒤 숫자는 쪽수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1책과 4책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가족 순교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 [병오 순교자]	① 555 ② 109, 115, 377, 435, 439
	③ 153, 179 ④ 125

김 루도비코

먼저 대조역주본 1책 555쪽을 보면, 『병인지명사적』 6권 39쪽에 기록된 순교자 김 루도비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글 고어 원본의 ‘金 루수’, ‘김 신부’ 등의 기록이, 김 루도비코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것임을 역주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서는 김 루도비코를 충청도 내포 구교우이며 김대건 신부님의 가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병인년 10월에 체포되어 형벌을 받다가 53세의 나이로 교수형

으로 공주에서 치명(致命: 순교)한 내용을, 목격증언자 김 빈체시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되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1책 555쪽 한쪽에서만 김 루도비코의 순교지와 순교 형태, 순교일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주 설명을 통해 김 루도비코의 이름이 ‘명집’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김 루도비코에 대한 기록을 더 살펴보려면, 인명 색인을 통해 더 찾아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김 베드로, 김 프란치스코, 김준명

대조역주본 4책 125쪽(『병인치명사적』 21권 4쪽)에서 순교자 김 베드로는 ‘김 신부의 사촌’이자 『치명일기』 535번 김 루도비코의 당질(5촌 조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 프란치스코는 김 베드로의 동생이고, 김준명은 김 베드로의 7촌이라 소개합니다. 이와 같은 가족관계 설명을 통해, 세 분의 순교자가 김대건 신부님의 친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인치명사적』 기록에서 김대건 신부님의 가족 순교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처럼 『병인치명사적』 대조역주본 6책 부록편의 인명과 지명 색인을 잘 활용하시면, 본받고자 하는 순교자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신욱 베드로(연구원)

소식과 공지

▣ 『병인치명사적』(대조역주본 전 6책) 주문 안내



-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 신청하시는 분께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무료배송).
주문을 모아서 매 주 1회 일괄 배송해 드립니다.

▣ 『교회사학』(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8호 간행

- 2021년 3월 31일 발행. 연구논문 5편, 보고서, 부록 포함, 360쪽.

▣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 편찬·간행 예정

- 2021년 4월 9일 안성본당의 의뢰에 따라 본 연구소에서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을 편찬·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1책은 ‘본당 자료집’이고, 제2책은 ‘공베르 신부 자료집’입니다.

▶ 정기후원(CMS) 전환 안내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께서서는 CMS 출금 방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내역(성함과 금액)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 송금을 먼저 해지하시고,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후원금 이체 은행

농 협 : 221091-55-000541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신 협 : 131-013-870130 (예금주: 수원교회사연구소)